

제2차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0. 6. 12. (금) 09:00 ~ 15:10
장 소	전주시청 4층, 회의실
참 석 자	이양재 위원장 등 11명 (재적인원 11명 전원 참석)
주요내용	○ 공론화 추진 배경과 의제 및 쟁점 설명 ○ 도시계획 제도 및 옛 대한방직 부지 현황 설명 ○ 옛 대한방직 부지의 시나리오워크숍 대입 방법 설명 ○ 공론화 조사 용역 통합 시행 검토 ○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 구성 ○ 차기 회의 일정
회의결과	○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 구성 - 입안결정권자(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기업관계자 및 시민 등 30명 내외로 구성 ○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세칙 검토 ○ 시민공론화위원회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구성(안) 검토 - 시민공론화 안내, 옛 대한방직 부지 현황, 회의공개, 자주하는 질문, 시민의견 수렴, 공지사항, 자료실 ○ 차기 회의 일정 - 2020. 6. 20.(토) 09:30 ~ 12:00

제2차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록

#. 개 회

발 언 자	발언 내용
간사	- 옛 대한 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감사입니다. - 지난 회의 때 말씀드린 대로 오늘 1부에서는 워크숍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 의제와 쟁점, 그리고 공론화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이고, 2부에서는 여러 안건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성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공론화위원회 총재적 인원은 11명이며, 현재 11명이 참석하시어,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시민 공론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일 회의 안건은 공론화위원회 회의 공개 범위 검토, 공론화 추진 배경과 의제 및 쟁점 설명, 도시계획 제도 및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현황 설명,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시나리오워크숍 대입 방법, 시나리오워크숍 자료집 및 용역 과업지시서 검토, 공론화위원회 운영세칙(안) 등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논의할 게 많고 배워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 그럼,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 규정 확정

발 언 자	발언 내용
위원장	- 오늘 회의할 내용 첫 번째는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 규정(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술자문단 등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지난 회의 때 기술지원단에 대한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운영 규정에 반영되지 않아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 부분은 제11조의 전문가 자문 조항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 지원단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각 사안에 따라 필요 시 행정예 요청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위원	- 자문단보다는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지원단 개념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료가 제공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추후 운영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 규정을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회의록 공개 범위 논의

발 언 자	발언 내용
위원장	- 다음으로, 회의록 공개 범위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 지난 회의 때 ○○○ 위원님께서 이름을 익명으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지난 제1차 회의 브리핑 시 간사님께서 모든 과정에 대한 공개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를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간사	- 제가 표현한 모든 과정에 대한 공개는 회의록과 더불어 회의자료 등도 모두 공개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회의 내용은 저희의 의도와는 다르게 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매 회의 시 회의록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그 후 회의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회의 내용 공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추가적으로 회의록에 성명 표기여부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 세칙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회의록은 기록하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요구가 있을 경우 그때 공개하는 것이 어떤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계속해서 공개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회의 시 굉장히 위축되지 않을까 합니다.
○○○ 위원	- 회의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 중요한 가치이지만 회의록이 공개되면 이해관계자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다시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알려 드리는 것은 익명으로 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간사님께서 브리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나눠서 말씀드리면 기본 취지는 공개한다는 것은 동의하며,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그 회의자료와 서브자료까지 다 포함해서 참고 자료까지 다 포함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회의록에 성명을 표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원회의 원활한 어떤 자기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면, 회의록을 공개를 할 때는 이름을 가리고 익명으로 공개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이 문제는 운영세칙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광주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위원회 운영세칙에 보니 제4조의 제5항과 제6항에 보면 모든 발언 내용은 모두 기록하고 이걸 뭐 당연한 거 같고요. 회의록을 정리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개인 신변 보호를 위하여 정리된 회의록에는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다. 이 위원회에서도 이런 걸 우려를 했어요. - 결국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익명으로 회의록을 공개해도 될 것 같아요.
○○○ 위원	- 제가 생각할 때, 시민들이 알고 싶은 건 공론화에서 어떤 논의들이 어떤 사항들이 논의가 되었는데 가 있습니다. - 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그 결과에 이러 이런 것 까지도 논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다만 회의록은 저희가 충분히 작성해 두었다가 누가 정말로 요청하면 보여 주는 선으로 소극적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 위원	-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 보죠. 이거 녹음하고 있는 것을 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해줘야 됩니까?
○○○ 위원	- 녹음 파일까지는 할 이유가 없을 거 같아요. 녹취록을 공개하면 발언에 제약이 있을 것 같아요.
○○○ 위원	- 정리를 해 드리자면 대부분의 공론화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 한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 그래서 가급적이면 회의록도 위원님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상관없지만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더라는 그런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부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요. - 지금 대부분 국내에서 진행되는 공론화 역시 회의록 다 공개하고 있어요. - 우리가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논의가 되었고 이렇게 결정되었다라는 그 과정을 공개하는 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에요. - 제 생각은 회의록을 공개하는 건 맞고 다만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것 같이 실질적으로 외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나머지를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독립성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공론화 위원회가 대한방직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시민들이 더 잘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논의되는 것들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일은 솔직히 좀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오히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좀 더 풍부하게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그런 의미에서 저도 회의록은 어떤 위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 다만 공개하기 전 위원회에서 사전확인 후에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럼 회의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회의자료에 지난 회의 회의록도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본 건으로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 할 것 같아서 일단 운영 세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운영세칙대로 결정하도록 하고 이 분위기만 느끼시고 운영세칙 결정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공론화 배경 및 의제와 쟁점 설명	
#. 도시계획 제도의 이해, 옛 대한방직 부지 현황 (자료실-숙의자료 참고)	
#.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공론화에 시나리오워크숍 대입 방법 설명	
#. 차기 회의 일정 논의	
발 언 자	발언 내용
위원장	- 양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 위원님께서 이후 일정으로 인하여 12시에는 가셔야 된다고 하시니까 다음 회의 일정을 먼저 잡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 2주 정도 후에 하는 게 어떨겠습니까?
○○○ 위원	- 현재 저희 공론화위원회가 조금 늦어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나리오 워크숍에 대한 사항 일찍 정하여 수행기관을 빨리 선정하여야 좀 더 수월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6월에 두 번 정도는 더 모이는 것을 의견드립니다.
위원장	- 네, 의견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주도 그렇지만 뭐 다다음주 초에 좀 한 번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 다음 주에 할까요? 날짜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19일은 어떠신가요? 금요일입니다.
위원장	- 저도 19일 날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 위원	- 죄송하지만 16일부터 22일까지 의회 회기 기간입니다.
○○○ 위원	- 혹시 그럼 20일 토요일은 어떠실까요?
위원장	- 네, 그럼 20일 토요일 오전으로 정하고 시간은 9시 반에서 12시까지로 정하겠습니다.
#. 시나리오워크숍 관련 사항 검토(점심식사 이후부터)	
발 언 자	발언 내용
위원장	- 자 그럼 이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오늘 이 과업지시서 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결정할 사항으로 정할까 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 원래 계약방식을 수의계약을 하기로 했던 것을 공개입찰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이 과업지시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과업지시서(안)이므로 검토하지는 않겠습니다. - 공개입찰을 위해 시에서 공개입찰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그리고 내역서를 수요일까지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께 올릴 겁니다. 그러면 그걸 검토해주셔서 다음 회의 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 과업지시서 범위가 시나리오워크숍하고 공론조사까지 하는 것인가요? 결정이 된 사항인가요?
위원장	- 시나리오워크숍과 공론조사를 통합하여 공개입찰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	- 그런데 아까 점심식사 때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타운홀 미팅이나 공론조사냐는 두가지의 성격과 내용이 다르므로 여기서 결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일단 하나의 안이 만들어지면 타운홀미팅이 좋은데 하나의 안이 만들어질 확률이 적기 때문에 공론조사로 갈 확률이 제가 볼 땐 90%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공론조사로 과업지시서와 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 그다음 운영세칙에 대해서 먼저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간사님 운영세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간사	- 참고자료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자료가 되겠습니다. 오늘 운영세칙을 확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운영 규정이 있고, 운영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이면 될 거 같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성과 중립성,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인 거 같습니다. 위원회의 공개 문제라든지, 회의록 정리의 문제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 외의 운영 세칙(안)은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운영세칙은 다음 회의 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그리고 지난 회의에서 오전에 회의가 끝나게 되면 오후에 내용을 정리해서 언론에 공개를 하고, 오후에 회의가 끝나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알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 오늘 회의는 내일이 토요일이라서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간사님과 논의를 했습니다.
#. 홈페이지 시민공론화공간 운영 관련 검토	
발 언 자	발언 내용
위원장	- 다음은 이게 홈페이지 시민공론화 공간 운영 관련 검토 사항입니다. 시에서 먼저 설명 해주시겠습니다.
시 관계자	- 첫 번째 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시민공론화위원회 있고 시민공론화 안내를 클릭하면 거기에 공론화 추진배경, 필요성, 위원회 소개, 절차, 의제, 사전준비위원회 경과보고를 담을 예정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옛 대한방직 부지 현황에는 저희가 지난번 회의 때 설명 드린 것처럼 도면하고 그동안 추진사항, 그리고 토지조서 등을 담을 계획입니다. 알림 마당에는 브리핑하면 저희가 보도자료, 회의결과, 회의록 이런 것들을 담을 거고, 자주하는 질문에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질문 / 답변식으로 작성해서 올리고 그다음 의견수렴 공간은 자유롭게 시민들이 자기 의견들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면, 시민공론화 안내 메뉴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괜찮을 거 같습니다. 공론화 추진 배경, 필요성, 위원회 소개, 절차, 의제?
○○○ 위원	-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의제까지는 넣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소개, 절차까지만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 저는 지금 쟁점이 대한방직 부지이거든요. 이 부지가 현재 물리적,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이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법적 주제나 이런 사항들을 집어넣어서 이와 관련된 것들을 시민들이 보고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별도로 하나의 메뉴로 해주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 위원	- 이 말씀에 동의하고요, 덧붙여서 아까 동명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 내용을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니깐 대한방직 부지 현황이라고 하지 말고, 부지 현황은 용역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므로, 오히려 용역사에서 발표한 ‘도시계획제도의 이해’와 ‘대한방직 부지 관련 설명’을 요약 정리해서 넣어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 위원	- 저는 이 안에 시민공론화 프로세스가 저한테도 전주시민들한테도 새롭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론화가 뭐고, 아마 ○○○ 위원님이 발표한 내용들을 여기다 올리는 창이 하나 있었으면, 굳이 대한방직뿐만 아니라 공론화가 무엇인지, 시나리오워크숍이 무엇인지 올려주면 시민들이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 그게 제가 말씀드린 자료실 개념입니다. 별도로 따로 페이지를 넣자는 말씀이신지요?
○○○ 위원	- 그게 너무 자료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맨 처음 메뉴를 시민공론화 안내라고 하지 말고 시민공론화위원회 소개로 해서 시민공론화 추진배경, 필요성, 시민공론화위원회 소개를 만들고 그다음에 오늘 발표한 ○○○ 위원님이 발표한 내용, 용역사에서 발표한 내용 그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알림마당, 자주하는 질문, 공지사항 이렇게 가도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 그래서 공론화가 무엇이라고 하는 공론화에 대한 이해 부분과 도시 계획제도와 관련 사항 이렇게 크게 두 개로 하고 그다음에 알림마당, 자주하는 질문, 시민의견수렴, 그 다음에 공지사항 이렇게 구성을 해보시죠,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위원	- 대한방직 부지 현황은 서브로 들어가게 되나요?
위원장	- 서브로 들어가는 겁니다.
○○○ 위원	-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 위원회 키워드가 두 개이지 않습니까? 대한방직부지, 공론화인데 그걸 굳이 서브로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말씀하신 자광에 포인트가 가는 게 문제라면, 거기에 넣는 자료들을 자광을 부각시키지 않고 말 그대로 객관적인 데이터만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걸 서브로 집어 넣는다는 게 오히려 애매한 느낌이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공론화에 관한 부분과 대한방직에 관한 부분은 다운을 받아서 보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면 화면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정도여야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화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 저는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야될 가장 중요한 사항이 현재 윤리적이고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나서 공론화 장에서 아 이것이 가능한 것을 하는지? 가능하지 않는 것을 하는지? 이것을 홈페이지에서 보고 나름대로 유추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알고 시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여기서 그런 내용을 나름대로 제시를 않게 되면 시민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주제로 해서 따로 메뉴로 빼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 위원	- 예전에 비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도시계획하면 현재 재개발, 재건축, 진행 상황까지 다 나와있거든요.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이 내용을 다 올려서 보기 좋게 파일로 올리는 건 사실 일도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로 공개하느냐가 핵심일 거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편집해서 올리는 쪽으로 하고 파일을 통으로 첨부파일로 올릴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 위원	- 그렇다면 옛 대한방직 부지 현황과 도시계획제도의 이해로 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담고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자료실을 보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 위원	-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페이지만 해도 몇십 페이지인 데 저기 한두 가지를 넣거나 그런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 위원	- 부지 현황이라 쓰고 안에 부지, 제도 넣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	- 그렇죠. 부지 현황하고 밑에 메뉴로 부지 현황, 그리고 도시계획 제도의 이해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위원장	- 그렇게 하고, ‘알림마당’, 자주하는 질문/답변, 시민의견 수렴, 공지 사항 그리고 자료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어떠실런지요?
○○○ 위원	- 자료실이요?
○○○ 위원	- 뭐 아까 자료실을 더 하자고도 하셨는데 자료실을 빼도 좋고요. - 자료실이 그러면 저런 내용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 위원	- 자료실이 아까 말한 시나리오워크숍 같은거 소개하는 공간인가요?
○○○ 위원	- 아까 ○○○ 위원님이 얘기한 시나리오워크숍의 이해 그런 것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 위원	- 알림마당에 보도자료, 회의결과, 회의록 다 올라가니까 거기다가 회의 근거자료로 넣으면 될 거 같습니다.
○○○ 위원	- 알림마당을 공지라고 해야된다고 표현만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	- 자료실을 관련 법률들 그런 것들을 실어주면 그걸 클릭해서 그 내 용하고 비교도 해보고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 일단 그러면 자료실을 넣는 것으로 하죠.
○○○ 위원	- 너무 많아지니까 회의공개 및 공지사항으로 하고, 시민공론화위원회 소개, 대한방직 부지 뭐 이걸 할 때는 뒤에 첨부 없이 그냥 화면에 뜨는 것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인 것 같네요.

○○○ 위원	- 첨부물은 자료실로 가야 된다는 거죠
○○○ 위원	-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면만 뜨고 나머지는 자료실로 보내고 그러면 굳이 공론화가 뭐고 워크숍이 뭐고 그건 다 자료실로 넣죠
○○○ 위원	- 자료실을 해서 아무래도 자료제공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 해줘야 할 거 같아요,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 위원	- 시민들이 부수적인 걸 찾아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위원장	- 네 자료실이 있어서. 다만 앞에 중요한 것은 대한방직 부지 현황 제목을 줄이더라도 도시계획적 현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 위원님이 얘기한 그걸 아주 간단하게 공론화에 대한 것도 들어가고 부차적인 것은 자료실에 넘겨서 보더라도 그렇게 자료실을 운영한다. 이렇게 정하시면 될 거 같고, 공지사항이라는 칸은 만들어 두되 공지사항 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다음 주에 공개입찰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소개로 공지사항 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운영 세칙 관련 검토

발 언 자	발언 내용
위원장	-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운영세칙과 관련되는 것인데 회의록을 가지고 지난번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회의록인데 공개의 정도를 정해야 합니다. 현재 이 자료는 이름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회의록이라기보다는 녹취록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녹취록보다는 이름이 익명으로 들어가고, 이거보다는 좀 더 축약된 내용으로 가는 것인가요?
시 관계자	- 원래 회의록이라는게 녹취록 수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회의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리려면 이 수준으로 올려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함축을 시켜가지고 요점만 들어가게 할 것인지를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 회의록 내용을 봤을 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발언하는 부분은 이름을 밝혀도 될 거 같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이슈가 되는 사항은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처리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 지금 ○○○ 위원님께서 첫 번째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름을 밝혀도 될 거 같지만, 이슈가 되는 사항으로 오해의 소지가 될만한 발언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이렇게 현재 회의록을 축약해서 요점만 정리를 하느냐 이런 두가지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 위원	- 저는 이대로 공개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름 공개에 관해서는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가운데 이름 한 자 지우는 것은 나중에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이게 누구인지 가리기 위함이지 내용적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공식적으로 발언내용을 인용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운데 이름 한 자를 ○자로 표기하자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 회의 결과는 한페이지로 축약해서 보고용이기 때문에 결과는 따로 만들 수 있을 거 같습니다만, 회의록은 이 정도 수준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 자 ○○○ 위원님 의견이셨고요, 또 다른분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	- 공개하는 문제는 이 정도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첫째로 공개하거나 일반인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한다면 이대로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름은 빼야합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회의록을 보관하거나 우리끼리 보는 건 상관없지만 홈페이지 공개해야 한다면 누구나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무조건 이름은 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사실 정보공개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것이 목표이지 누가 이것을 얘기했느냐가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익명으로 처리를 해서 이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름을 써서 발언자의 심리적인 부분이나 의식 이런 것들을 읽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적나라한 얘기가 나올 경우를 대비한다면 이름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고 아닌 부분은 익명으로 올리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 위원	- 초반에 어디는 이름이 들어가고 어디는 안들어가고 하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처음부터 넣지 않는 것이 낫다고 보입니다. 이름과 직책까지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A, B, C로 가는 것이 우리끼리는 알더라도 공개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아니면 위원A, 위원B, 위원C 이렇게 가도 되고요.
○○○ 위원	- 그런식으로 나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위원	- 그건 비공개 회의에서나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위원 A,B,C로 하는 것은 그건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데요.
○○○ 위원	- 내용은 공개하잖아. 이름은 공개하지 말자는 것이고. 우리끼리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줄 수 있지만 홈페이지에 올릴 때는 이름과 직책을 다 빼자는 것이예요.

○○○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행정에서 정보공개를 해주잖아요. 정보공개를 할 때 이름을 넣으면 여기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빼자는 것이고요.
○○○ 위원	- 선출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첫 회의는 저는 예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정보공개법에 기준해서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정보와 공익적 측면, 행정정보라는 측면에서 공개할 것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나눠서 원칙을 정하면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이름을 가리고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자유로운 발언이 침해될 소지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감수해야 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공개한다고 함은 일정 정도 이 과정에 대한 공개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 발언을 하시고 나서 그거에 대한 수위조절이나 이런 건 이후에 회의록에서 본인이 직접 정리를 하시고 또는 회의록 삭제를 요청하시는 방법을 해야지 지금 어떤 원칙을 정하지 않고 이걸 공개하고 저건 공개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그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보공개법의 경우 이름을 밝히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름은 밝히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익명으로 하고 회의록의 수준은 녹취록을 정리한 수준인 이 정도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 요청에 의해 첨예한 논쟁에 대해서는 회의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 위원	- 회의에서는 다 할 수 있어요.
위원장	- 그러니까 지금 논의되었던 이 얘기를 가지고 다음번에 감사님께서 운영세칙을 만들어오면 그때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 위원님께서 토론회 하자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와서 참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운영세칙은 있어야 하거든요. -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시나리오워크숍에서 토론을 해야되겠지만 그 내용을 어디까지 공개할거냐 저는 이제 가운데 한 자만 형식적으로 지우든 그래야 이게 편할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 또 한가지는 “나, 공론화위원회 참관하고 싶어, 시민들을 대표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이걸 좀 듣고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언론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참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걸 수용을 매회 모든 공론화는 우리가 회의록을 통해서만 공개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 위원	- 모든 시민이 다 참관할 수는 없잖아요? 참관인이 2,000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수용을 하겠어요? 그건 못하는 거니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회의록으로 대체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처음에 회의하는 것은 참관을 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도 일단 양해를 구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1차 때 회의 끝난 이후에 언론 설명을 하겠다고 했더니 언론 쪽에 계신분들의 느낌을 알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달라는 거구나. 언론에서는 누구는 먼저 주고 누구는 천천히 주는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안 하고 한날한시에 공개적으로 밝히겠다고 하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 운영세칙은 오늘 논의된 얘기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시나리오워크숍에 관한 사항

발 언 자	발언 내용
위원장	- 그러면 실제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나리오워크숍에 대한 얘긴데 가장 그래도 조금 외울 거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몇 분이나 워크숍에 참여시킬 것이냐 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16명~32명 정도를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구분은 정책입안결정자, 기술전문가, 기술이나 산업관계인, 시민으로 논의를 나눴습니다. - 인원수부터 먼저 말씀을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	- 개념상 여쭙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해관계자들의 범위 안에 사실 이해관계자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자광 대표는 아니어도 자광측이나 이런 쪽도 시민이 이해관계자라면 자광도 이해관계자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 위원	- 그렇죠 자광도 이해관계자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아니 이해관계자를 먼저 정의를 해야 그다음에...
○○○ 위원	- 그러니까요. 자광의 문제는 이해관계자 범위에서 아주 구체적입니다. 참여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는 별도로 이야기 해야 됩니다.
○○○ 위원	- 이해관계자에 자광이 들어가긴 들어가죠?
○○○ 위원	- 그렇게 하려면 다음 회의때 자광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는게 어떤지 거기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그 부분은 회의 마지막에 논의하도록 하고, 그러면 일단 인원수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 같은데요. 여기 ○○○ 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한 30명 안팎으로 얘기가 제일 많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숫자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숫자를 먼저 정하기 전에 구분에서 정책입안결정자, 기술전문가, 기술이나 산업관계인, 시민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래도 도시계획이라든가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공무원들이나,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저희보다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최소인원이라도 같이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 제 생각에 나중에 대략 숫자가 결정되면, 정책입안결정자는 누구냐? 뭐 그런 식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면 어떨지 생각합니다.
○○○ 위원	- 기술전문가는 예를 들면 도시계획전문가를 말하는 건가요?
위원장	- 저는 도시계획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 ○○○ 위원님처럼 회계 이런 쪽도 그러니까 큰 테두리만 정하고 가면 됩니다.
○○○ 위원	- 여기서 저희가 숫자를 결정하는 겁니까? 논의하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입안결정자 8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 건지 전체 기본 시나리오가 나오면 다음날 주제를 짜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 도로교통 하는 사람, 주택하는 사람 분야별 그러니까 우리 시나리오 안에 들어있는 분야별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서도 4개 분야면 4개 분야 공무원이 들어가야 되고 업체도 4개 분야 업체가 들어가야 되고, 숫자라든가 누가 들어올 것인지는 문제는 나중에 시나리오 대강의 내용이 어디까지 가는데에 직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구체적인 숫자를 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논의할 의제가 나오고나서 그다음에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의제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 위원	-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논의할 의제는 저희가 결정하는 겁니다.
○○○ 위원	- 아까 ○○○ 위원님 말씀으로는 방식이 우리가 의제를 결정해서 줄 수도 있지만 의제 자체를 시나리오에 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	-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논의해 주십시오. 이게 의제지 않습니까? 오신 분들께서 이걸 논의해 주십시오 저걸 논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 그러면 ○○○ 위원님은 그쪽 분야를 잘 아시니만, 저희들은 먼저 논의해야 될 사항이 어떤 의제를 줄 것이냐를 먼저 논의해야 된다. 숫자보다도 그 말씀이지요?
○○○ 위원	- 저는 이 자리에서 당장 뭘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논의를 통해 서로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하는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제나, 인원수나 아직 의결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 아까 말씀하신 것을 예를 들면 보통의 경우 30명이 4팀으로 쪼개져서 진행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팀끼리, 업계팀은 업계팀끼리, 주민들은 주민들끼리 처음에는 쪼개져서 자기들 안을 먼저 만듭니다. - 그리고 각각 세부 분야의 공통 부분끼리 다시 모여서 논의하고 또 다른 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 원칙적으로는 개별 그룹별로 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복잡하니까 처음부터 묶어서 하자고 하는 변형안도 가능합니다.
○○○ 위원	- ○○○ 위원님께서 설명한 것과 ○○○ 위원님 설명한 것으로 이야기 하자면 일단 교육을 시킨 다음에 전체 질문을 한 다음에 정책결정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모습, 기술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모습, 시민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그려내고 그 다음에 또 그룹을 새로 만들어서 정책결정자, 시민을 섞어서 분야별로 얘기가 되어진다가 원칙인데 처음부터 정책결정자, 시민 섞어서 바람직한 모습을 그려내라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초반에 이슈, 몇 사람을 여기다 집어넣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집어넣느냐는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처음 구성을 할 것이지 않나요?
○○○ 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의제로 삼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이걸 용도로 바꾸는 것도 의제에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사람들을 불러야 할지, 도로 관련 사람을 불러야 할지 이런 판단들이 가능해지니까요. 그래야 숫자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제의 범위가 먼저 논의되어야 합니다.
○○○ 위원	- 의제를 정리를 해보면, 4가지 정도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 첫째가 용도변경을 허용할 것인지, 만약 해준다면 다 해줄 것인지, 아니면 부분 용도변경을 해줄 것인지, 지금 현재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다운조닝(downzoning), 업조닝(upzoning)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향을 해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운조닝(downzoning), 녹지지역으로 가라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용도변경에 대한 허용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얼마만큼 해 줄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해 줄 것인지를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두 번째는 용도변경이 된다면 개발내용으로 그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상업적 개발이나, 문화용지가 들어가야 하느냐, 이런 얘기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세 번째로는 계획이득을 어느 정도까지 시민공론화에서 얘기해줄 수 있을까, 계획이득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앞서 용도변경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획이득에 대한 문제가 조금 논의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서는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 이 정도가 크게 보면 4개 정도의 분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셨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 ○○○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 용도변경 말씀하셨는데 저는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하나는 지금 기본계획이 주거용지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과 두 번째는 기본계획이 주거용지인데, 이것을 상업용지로 변경시키는 것, 그때 이것을 일부로 할 것인지, 전체로 할 것인지 경우를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본계획상에 있는 것과 부합이 되는 것을 했을 때는 사실은 뒤에 다른 절차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기본계획 자체를 상업용지로 가는 것 이렇게 하게 되면 부분이나 전체냐 그게 문제인데, 그랬을 때 거기서 파생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랄지 기부채납이랄지 또는 아까 사전에 협상을 통한 이익환수랄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자광에서 안을 내고 공론화 촉발되서 이걸 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이번에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질문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냥 백지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실제 이런 시민들 의견지형도 있습니다. 시에서 사지, 사서 그거나 하지, 아까 ○○○ 위원님이 말씀하신 범위에는 안들어가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적어도 여러 가지 시민들의 양쪽 끝에 지형이 어느 쪽에나 담겨야 하는데 어떻게 담을 것이냐하는 고민이 또 생기는 거죠,.
○○○ 위원	-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시나리오워크숍을 할 때 다운조닝(downzoning)까지 전제하에 해야하는 지는 논의를 더 해보아야합니다.
○○○ 위원	- 저는 말씀하신 4가지 이게 필요한데 이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아까 말씀하신 전체 스펙트럼을 나뉠 모아 볼 수 있는 옛 대한방직 부지의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 그러니까 아까 ○○○ 위원님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한거 같거든요. 이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그게 정해져야 시민들이 대다수가 공원을 해야된다고, 아니면 시민이나 정책, 산업 모든분들이 그 방향으로 한다면, 이거는 다운조닝(downzoning)이 될 텐데 그러면 결국은 그게 시민들의 의견이라면 시에서 사는 것도 고민해야하고 이렇게 가야지 하는 생각도 합니다.

○○○ 위원	- ○○○ 위원님 저도 그게 좋은 생각이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땅을 시에서 과연 살 수 있을까,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전주시가 그렇게 던졌을 때 그럴 가능성까지 열어야 할 지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 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심의 위원회가 아니고, 공론화위원회라고 나갔을 때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저 안에 내 의견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의 하나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야 공론화를 했을 때 의미가 있을 거라고 하는 전제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그걸 시가 재정으로 사서 공원화하자라고 했을 때 시가 돈이 있느냐, 자광이 팔거나, 팔면 얼마에 팔거나 등에 이게 서브로 붙어서 토론을 통해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의견을 받아보는 것이 공론화의 일부라고 보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배제가 된다고 하면 이런 의견이 있는 사람은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해보니까 비현실적이네, 그래도 해볼만 하네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접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 고민하는 겁니다.
위원장	- 좋습니다. 저는 현실적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또 여러 경우의 수를 열어놓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만약에 열어놓는다면 실제로 도시계획적 상황이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백지상태에서 그냥 대한방직 부지 미래상을 그려보라고 하며 출발해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합니다.
○○○ 위원	- 아니죠. 도시계획 등에 대한 정보는 다 주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서 논의해보고 그럼에도 바람직한 미래상이 뭐냐를 논의를 충분히 했는데 그게 이들이 워크숍이니까 첫날은 열어 두어 그런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좁혀지고, 시민들과 정책입안자들이 완전히 다르다면 무언가 시각차가 큰 것 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은 좀 필요하지 않냐는 것이지, 바로 경우의 수를 줄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 위원	- 그것은 상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위원	- 모든 정보를 다 알고 고민을 하고 들어와서 첫날에 그런 논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그런데 저는 얼마의 폭을 넓히느냐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이고 ○○○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그렇게 하려면 이러한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또 안이 줄어들 수는 있겠죠.
○○○ 위원	- 저도 제 생각에 예를 들면 공원으로 하겠다는 안이 나왔으면, 그다음 이것을 공원으로 하려면 시에서 매입해야 된다는지 아직

	법률적으로는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나오니까 이야기 들어보면 안 중에서 4가지 안이 나왔다면 그중에 공원은 좀 어렵겠네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 위원	-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고, 다만 그 문제를 논의해서 풀어내고 저 문제를 논의해서 풀어내고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번 이상의 시나리오워크숍이 필요하다, 상당한 시간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이게 아까 ○○○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8명이면 28개 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면 이틀만에 안끝납니다. 예를 들면, 28명이 28개의 각자 안을 만들고 서로 논의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제 범위를 말씀하신 대로 열거냐 제한할거냐 이것이 여기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죠.
○○○ 위원	- 저는 제가 볼 때 미래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위를 저희가 고민을 해서 줄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두 개는 다른 이슈인 거 같아요. - 지금 ○○○ 위원님은 바로 용도변경, 기반시설, 개발 방향, 이런 식 이라면 저는 좀 큰 의미의 개발 방향을 먼저 이야기하자는 거죠. 지금 우리가 1번하고 맞물릴 수는 있는데 날려놓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시민들이 본인들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자는 거죠.
○○○ 위원	- 논의의 흐름을 그렇게 가지고 가자는 얘기신거잖아요?
○○○ 위원	-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대략적인 소폭보다는 넓은 폭으로 논의를 시작하게 하되 예를 들면 대부분 오시는 분들은 이 정도 판단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시가 사서 공원화하자고 의견이 나왔을 때, 토론을 붙여보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논의를 하지 못하게 범위를 정하는 것과 왜 이게 시나리오에서 배제가 됐고 또 어떤 판단을 거쳐서 과정을 경험하게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위원	- 우리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공론화인데 나올 수 있는 모든 얘기는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수용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해야된다고 봐요. 대신 우리가 봐도 실현 불가능하고 행정에서도 이런 점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때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게 ‘우리가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지만 안되는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문제가 해결은 된다고 봐요. -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솔직히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제가 들어보면 비슷한 말씀이십니다. 출발을 저렇게 하고 예를 들면 오전에 전체 워크숍팀을 모아놓고 섞어놓고 참여단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주제에 미래의 모습을 그려봐라. 그럼 얘기들이 쏟아질 거 아닙니까? 바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말고 쏟아진 얘기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 제시가 있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 논의를 하게 하면 저는 충분히 좁혀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위원	- 제가 볼 때는 다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첫 번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합니다. 비전과 목표를 논하기 전에 기본적인 도시계획의 이해, 대한방직 부지의 쟁점, 그다음에 여기 나온 얘기들이요. 2012년도 논문에서 다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경관 중시해라, 뭘 중시해라, 심지어 기부채납 방식까지도 시민들 의견을 다 냈어요. 그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교육받은 틀들을 최대한 반영하지만 내가 서부신시가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또는 전주시의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는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의견을 낼 겁니다. 내놓으면 거기까지는 다시금 같은 얘기이고, 그다음부터 ○○○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쟁점이 들어가는 건데, 이러한 단계는 거치자, 합의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위원	- 저도 같은 얘기였고 똑같은 얘인데, 진행해 나가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 예를 들어 30명이 모여있을 때 쟁점, 현황, 용도지역에 대한 문제 등을 다 설명을 하고 각자 30명이 생각하고 있는 대한방직의 미래상을 한번 발표해다오. 적어서 제출하는 것도 좋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룹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논의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필요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르게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을 해야한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의견 숙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바람직한 미래의 방향이 똑같으나 또 한번 얘기를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 합의를 볼 수 있고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좁힐 수 있다고 보거든요. -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충분히 저희가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또 집에 가시면 고민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오늘은 충분한 논의를 하고 지금 논의과정에서 상당히 좁혀진 뭐가 있거든요.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음 회의 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 위원	- 그러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원과 절차에 대해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을 모실 것인가’ 하는 측면은 생각들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시나리오워크숍에 대해서 깊이 있는 숙의와 이해가 가능한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와 비전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 저는 그게 공론조사여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론조사는 철저하게 시민대표성에 기반한 사람들, 이 사안을 많이 아는 사람들, 정책 결정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이든 의원이든 이런 분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또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포진시킬 것인가? 그리고 도시재생 전문가들 굉장히 많잖아요? -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워크숍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를 생각했고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제가 제안을 드리면 다음에 간단한 표에 나는 이런 사람들이 시나리오워크숍에 맞는 사람들이라고 본다. 논의는 각각 그룹을 나누어 팀을 나눌 건지 아니면 한 명씩 섞어서 이런 팀이 나누어지면 좋을지 의견을 나눠 보면 좋겠습니다.
○○○ 위원	- 저도 저희 공론화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시나리오워크숍이라고 생각되고 시민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야에서 고민을 하실 분, 당연히 기술전문가나 정책입안자도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까 ○○○ 위원님은 28가지 방향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안 봐요. 나와봤자 ○○○님 맥락에 맞는 4가지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결국 주거용지로 하든지 그냥 공원으로 하든지 상업용지까지 가든지 요정도지.
위원장	- 또 더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네 ○○○ 위원님
○○○ 위원	- 오늘 회의에서 ○○○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최소한 정책입안자들, 기술전문가들 숫자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상관없지만 최소한 그 정도의 윤곽은 정해 놓아야 다음 단계에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위원	- 제가 궁금한 건 의회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 의원이 2분 참석하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참석 가능하세요?
○○○ 위원	- 아무튼 뭐 해답을 주시면 노력해 봐야죠.
○○○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인원이라도 대충이라도 정할 수 있습니까?
○○○ 위원	- 숫자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목록은 짤 수 있을 겁니다. 각자가. 기술전문가 목록은 짤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몇 명으로 할 것인가는 지금 당장 정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 ○○○ 위원님, 여기에 16~32명, 예를 들어서 20~32명 이 정도는 동의하십니까?
○○○ 위원	- 아 예, 이 정도는 범위 안에 있긴 있습니다.
○○○ 위원	- 그러면 굉장히 좁혀졌잖아요, 30명 내외. -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정도는 상당히 동의가 된 거 같습니다. 제 느낌에, 구체화해가는 거고 가급적 시나리오 대안을 줄이는 건 좋다. 줄여서 3개 정도 대안이 나왔다면 그것은 나중에 공론조사를 통해 정하면 될 거 같고요. 또 정말 잘해서 하나의 안이 압도적으로 나오면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폭넓게 의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좋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가려고 한다면 크게 그룹화가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좁혀가면 안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 확실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전직 공무원으로서 그 분야에 전문영역을 가지고 있는 분도 좋다고 생각해 봅니다. 다만 여기가 신도시 주변이기 때문에 개발 되면 옛날 구도심은 도태된다면 구도심에 계신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전문적 영역으로 들어가면 저는 한 네분 위원님들로 해서 공무원 중 토지이용에 관한 영역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교통 등 기반시설에 관해서 공직에 계셔서 일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이득 등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 그래서 정해진 생각은 아닙니다만 4그룹 정도로 나누어 볼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자광은 기업이나 산업 관계자 쪽으로 들어갈까요? 어떤 부분인가요?
○○○ 위원	- 자광은 이해당사자이긴 한데, 여기에 참여시키기는 직접적 당사자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 이해당사자라고 하지만 직접적 관계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자광의 정책제안에 대한 설명은 듣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 위원	- 설명을 저희 공론화위원회 뿐만아니라 시나리오워크숍에서도 가능한 부분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위원장	-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간사님 차기 회의 시 저희가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위원	-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에 대해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직업군 분야 및 인원수 등에 대한 의견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 다음 이것을 단일집단으로 구성할 것인지 공무원들끼리 모아놓고 도시계획가들끼리 모아놓고 시민들끼리 모아놓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논의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섞어서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마다 안을 만들어서 내놓을 것인지 이러한 사항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 제가 서식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저는 둘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소요되겠지만, 섞거나 단일로하거나 두가지 방법 다 같이 진행해도 좋은 방향이 결정될 것 같다고 봅니다.
○○○ 위원	- 제가 한가지 의견을 드리자면, 우리 스스로가 결과나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모의 시나리오워크숍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나중에 최종 우리가 공론조사까지 마친 다음에 보고서를 쓰면서 부족한 것도 채우고 의견도 제시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 시나리오워크숍 진행 시 참관하는게 아니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사례가 없다보니 모의 시나리오워크숍을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우리 ○○○ 위원님께서서는 표 작성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 조금 더 골치를 아프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공원으로 가든 주거용지로 가더라도 세부적인 사항은 전주시의 결정 권한이기 때문에 더 골치 아픈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논의할 것인지, 그리고 그다음에 상업지역으로 갈 경우, 중심상업지역으로 갈 것이냐 일반상업지역으로 갈 것이냐 근린상업지역이냐 유통상업지역이냐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워크숍에서 다룰 것이냐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수를 늘리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 ○○○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위원	- 원칙적인 부분들만 얘기하고 나니까 오해가 있을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시나리오워크숍에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정말 원칙입니다. 실제 이렇게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4개 집단이 무조건 기계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도 아니며, 업계를 찾으려고 보니까 업계가 없을 경우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할 경우 그 부분의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기본이지, 4개 집단이 무조건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결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 그러니까 이것은 사례이기 때문에 참조로 해서 이 칸은 그룹으로 비워주셔도 되고, 그러면 몇 가지 오늘 두드릴 사항은 아님니다만은 다음 회의때 가려야 할 논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늘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회의록을 작성할 겁니다. 다만 운영 세칙에 의해 이름을 밝힐 것인지에 대해 저희들 대부분 의견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얘기가 되어진 것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록은 녹취록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금일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간사님과 시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서 월요일날 10시 30분에 언론에 알리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음 회의 때는 시나리오워크숍 및 공론조사의 과업지시서와 운영 세칙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겠으며,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 구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오늘 오랜 시간 5시간 가까이 열정을 가지고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토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간만큼 또 보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